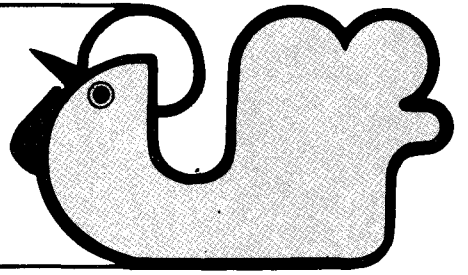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본회 88년도 정기총회 성료

신임회장에 정태원회장 유임

- 금년 주요사업으로 소비홍보사업 주력키로 -

본회는 지난 2월11일(목)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전국대의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현 정태원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한순, 장민기부회장을 유임시키고 건강때문에 사의를 표한 차상진부회장 후임에는 신홍중사장(고창양계)을 새부회장에 선임하는 한편 이사·감사를 포함, 31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배성황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본회 황인옥전무가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결산을 보고한후 임원개선을 거쳐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안 의결 등 기타사항을 심의했다.

회의는 금년도 수지에산안 총 6억 6백61만 1천원을 확정짓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및 유통구조개선과 가격안정사업 등 11개안을 통과시켰으며 기타사항으로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양계농가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대정부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의 결의

우리 양계인은 최근 심화된 계산물의 수입개방압력에 대응하고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자조·자립·협동을 실천하는 양계인이 된다.
2.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수입개방압력에 강력히 대처하며 생산성 향상과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무모한 규모확장을 자제하고 생산품의 재값받기와 건전한 유통을 위해 앞장선다.



△새로 선출된 회장단 및 임원진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

4. 우리는 국민보건향상과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소비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대정부 건의문 요약

1. 닭고기·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입반대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을뿐 아니라 산업구조가 생산과 유통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수입이 개방될 경우 생산자의 몰락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닭고기·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을 결사반대 합니다.
2. 각종 세제 지원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사료,약품, 기계기구 등 생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이웃 일본, 대만 등과 같이 면제하여 주시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를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계산물규격 기준제정

우리 현실에 맞는 양계산물의 규격기준을 정하여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계산물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조금 제도실시

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가공처리유통에 축협중앙회 직접참여

양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근대화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가 노계처리 난가공 및 양계산물 전문판매점개설 등 가공처리와 유통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 2. 1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원일동

유입된 정태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이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에 이어 계란·닭고기까지 수입개방을 요구해와 어수선해진 업계를 전국 30만양계농가가 혼연일치된 단결자세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양계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소비홍보사업과 사료곡물 관세·부가세인하, 소득표준을 인하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전 양축가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이인형과장은 내빈축사를 통해 「올해안으로 양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양계업계를 정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양계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계란집하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양계산업발전에 공이 큰 공로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감사패〉

- 이인형과장(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 남궁선과장(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 서울사료(주)
- 대한제당(주)
- 한국계우회
- 천호계우회
- 윤봉중사장(축산신보사)
- 손시환박사(한국가금학회)
- 신정재사장(과학사료(주))
- 정인범회장(우성사료(주))
- 이각모사장((주)동방)

- 김윤집전무(포천축협)
- 이계은사장(계명정판사)

〈공로패〉

- 대한양계협회 전남지부
- 대한양계협회 광주채란분회
- 김종설(전북지부 육계분과위원장)
- 김복천(전남지부 육계분과위원장)
- 박해탁(경북지부 채란분과위원)
- 임홍수(경남지부 채란분과위원)

□ 회장단

회장 : 정태원(홍성농장·홍성사료대표, 사료협회장 역임)

부회장 : 신흥중(고창양계, 부화)

한 순(홍일농장, 채란)

장민기(버들농원, 육계)

□ 감사

배성황(삼화농원, 부화·종계)

노광순(운암농장, 채란)

□ 이사

이상운(부화·종계), 박준영(부화·종계), 이계욱(부화·종계), 류종래(부화·종계), 이재식(부화·종계), 이종운(부화·종계), 김영환(부화·종계), 최병현(부화·종계), 배선채(부화·종계)

이학복(채란), 김현(채란), 이규상(채란), 한명복(채란), 김중경(채란), 최영식(채란), 허돈(채란), 황석규(채란), 최준구(채란), 심준식(채란), 주병한(채란)

강석부(육계), 권태웅(육계), 김풍림(육계), 이종길(육계)

박옥룡(전북지부), 안명수(전남지부), 조동필(경북지부), 손종현(경남지부), 현정희(제주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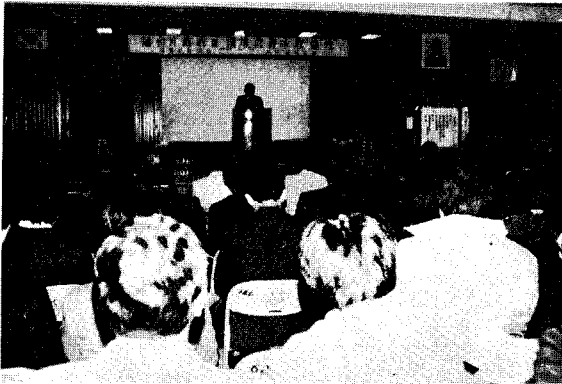
이어서 양계산업의 발전과 상호우의를 다지는 리셉션을 가졌다.

계사시설개선의 수익성향상 심포지움

— 2월23일,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

본회와 한국가금학회 공동주최로

본회와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가 주관하고 미곡사료곡물협회와 신기농장 및 제일제당의 후원으로



△계사의 시설 및 환경개선과 수익성향상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지난 2월23일(화) 수원소재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계사의 시설 및 환경개선과 수익성향상에 관한 심포지움」을 회원, 학계, 연구계, 관련업계 및 일반양축가 등 2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한국가금학회 오세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양계산업분야가 취약점이 있어 계사시설 및 계사 환경문제에 소홀히 해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88 국제올림픽행사를 앞두고 양계농가의 골치거리인 계분처리 등 계사시설의 환경적인 문제가 강조되는 시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의 효율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해 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매리랜드大 루이스박사의 계사의 구조와 시설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고창양계 신흥종 사장은 농산물중에서도 생산원자재인 사료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축산물의 경우 수입개방압력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사의 자동화 시설을 통해 사료비절감을 비롯 인건비절감과 환경개선으로 인한 투약비절감 등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쌍용농장 장대석사장은 「최근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요즘 축산업도 축분의 환경오염문제로 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양계장 : 1천㎡)이상의 양계장설비를 가진 양계장에서는 폐기물(계분)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각 양계장에서는 조속히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 양계인은 계분의 합리적인 처리이용방법을 검토하여 계분환경오염의 원천을 배제하고 그간 급비의 과다로 토박해진 농토의 지력증진을 도모하는데 유기질 발효계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정성과 심도높은 질의응답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사의 시설 및 환경개선에 의한 수익성 향상방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지가 상당히 고조돼 있음이 돋보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앞서서 학회발전유공자에 다음과 같이 감사패 수여식도 있었다.

●이재식(계유부화장사장), 차상진(봉명부화장사장) 민덕기(덕일농장사장), 한순(홍일농장사장), 이상윤(신기농장사장), 박준영(한협축산사장), 황석규(삼진농장사장), 조순희(경기식품사장), 김영옥(제일사료전문), 장경국(선진사료이사), 최명옥(제일제당이사)

'88 소비홍보 자문회 개최

- 오봉국 자문회장 연임 -



△88년도 소비홍보 자문회가 개최되었다.

본회는 역점사업인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 효율화를 위해 소비홍보 자문회를 '88. 3. 2(수) 대우빌딩 지하 만다라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자문위원으로 힘써주신 분들의 1년간 임기가 만료되어 양계업계 및 유관업계인사 24명을 '88소비홍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회장은 오봉국 서울대 학장이 연임되었다.

이날 자문회는 14명이 참석하여 '87소비홍보사업실적 및 '88사업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회의 후에는 만찬회가 있었다.

'88소비홍보 자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소 속
학 계	오 봉 국	서울대 농 대학 장
"	오 세 정	가 급 학 회 회 장
단 체	박 찬 금	사 료 협 회 회 장
"	류 종 래	가 급 처 리 협 회 회 장
"	최 죽 송	동 물 약 품 조 합 이 사 장
"	구 본 영	계 우 회 연 합 회 회 장
"	강 희 구	양 계 조 합 조 합 장
"	박 영 인	USFGC 대 표
"	이 경 원	ASA 대 표
신 문 사	윤 봉 중	축 산 신 보 사 장
"	엄 익 채	농 수 축 산 신 보 회 장
잡 지 사	김 중 곤	현 대 양 계 사 사 장
관 련 업 계	김 길 원	바 이 엘 사 장
"	양 재 의	서 울 사 료 사 장
"	이 철 용	경 기 사 료 사 장
양 계 업 계	이 계 조	천 호 그 룹 회 장
"	차 두 홍	한 일 농 원 회 장
양 계 협 회	정 태 원	본 회 회 장
"	신 흥 중	본 회 부 회 장
"	한 순	"
"	장 민 기	"
"	이 상 윤	본 회 이 사
"	이 학 복	"
"	김 현	"

닭고기·계란수입 결사반대 시위

- 서울역광장에서 양계인 200여명 참석 -



본회는 지난 2월9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양계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계란수

입 결사반대」 「30만 양계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라」 「안보적차원에서 축산물수입개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동안 시위를 가졌다.

최근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압력에 이어 닭고기·계란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요구에 대해 이날 서울경기지역 양계인들은 새벽 6시30분부터 닭고기·계란수입 결사반대라고 쓴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서울역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본회는 이날 축산물 수입결사반대를 위한 전단5천매를 제작, 출근하는 시민에게 배포하는 등 양계인들의 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MBC-TV취재팀은 시위광경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특히 본회 육계분과 전문위원인 수원 조정래사장이 인터뷰에 응해 닭고기·달걀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의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는 천호부회장 과학축산 신기농장 과학사료 등 유관업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불우이웃에 달걀·닭고기 보내기운동

- 30구좌분 영보자애원에 전달 -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30구좌분을 전달했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계농가를 돕기위해 축산신보사가 주관하고 있는 「불우이웃에 달걀·닭고기 보내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2월29일 현재 총 1,690.3구좌가 접수되었다.

이에 지난 1월21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청암양로원과 천사양로원에 달걀·닭고기 70구좌분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2월8일 용인군 이동면 목리소재 서울시립 영보자애원(뽕말타수녀)에 30구좌분(달걀 1만5백개)을 본회 노영환편집국장과 축산신보사 윤봉중사

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되었다.

이날 30구좌분의 달걀이 전달된 영보자애원은 1천여명의 심신장애 및 기타 폐질환자로서 자활능력이 없고 갱생불능이며 대부분 정신장애자로서 영구보호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다.

영보자애원 원장 柳 鎭타수너는 「선진외국들의 축산물 수입개방압력과 소비위축으로 양계인들과 축산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기관에 위문품을 보내준 것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축산인들의 따뜻한 정성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불우이웃에 달걀·닭고기 보내기운동」은 오는 3월15일까지 한달간 연장해서 접수받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계속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본회가 적극 후원하고 있다.

닭고기 수입개방압력 동조여부 사실조회

- 생산자대표가 코델리(주),
두산식품(주) 직접방문 -

본회는 지난 2월26일(금) 육계분과위원(위원장: 장민기) 및 지역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근 미국내의 계육가공업계에서 정치적인 로비를 통하여 광범위한 시장개방압력을 넣고 있음과, 국내 유관업계의 간접적인 가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강력한 응징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열렸다.

이날 결의된 동조여부 사실조회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닭고기 수입개방압력 동조여부 사실조회

1. 귀사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2. 국민소득증대와 식생활개선 그리고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닭고기 소비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영세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본회에서는 시설개선 및 기술혁신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유통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제수준의 육계산업수준까지는 상당기간이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근 미국의 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만약 닭고기 수입이 개방된다면 우리 양계농가는 경쟁력이 없어 대부분 도산케 되므로 그에 대응조치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탐지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의 캔터키, 맥도날드등 닭고기를 사용하는 회사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동원 한국등에 닭고기 수입개방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관회사까지 수입개방압력에 간접적으로 가세하고 있다는 바 이 정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나,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로 우리 양계인은 사실여부를 확인 강력한 응징조치를 강구기로 2.26 육계분과위원회 및 지역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하였사오니 본 사실여부와

5. 만일 우리 정부에서 부득이 닭고기 수입을 일부 또는 전부 개방할 경우 귀사에서 외국산 닭고기를 수입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3월10일까지 서면으로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이에대해 두산식품(주)는 회신을 통해 정치적인 로비와 간접적인 가세가 없었다고 밝혀왔다.

전북지부 정기총회 개최



본회 전북지부(지부장 박옥룡)가 지난 2월4일(목) 오후2시 지부사무실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 및 축산관련인사 6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옥룡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계란가격안정, 육계가격안정 및 소비홍보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지역회원들의 생산조절과 대동단결로 알찬 한해를 만들기를 기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7년도 사업실시결과, 수지결산,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개선했다.

- 지부장 : 박옥룡
- 부지부장 : 홍용완(채란), 김정남(육계)

고석수(채란)

- 운영위원 : 이현진(부회분과위원장)
- 박옥룡(채란분과위원장)
- 김중실(육계분과위원장)
- 이한주(이사, 채란)
- 최상기(이사, 채란)
- 김철한(이사, 채란)
- 권 호(이사, 채란)
- 이복연(이사, 채란)
- 김경은(이사, 채란)
- 송영덕(이사, 채란)
- 이진준(이사, 채란)
- 장 순(이사, 육계)
- 장영근(이사, 육계)
- 유재영(이사, 육계)
- 박원모(이사, 육계)
- 이택교(이사, 육계)
- 백홍파(감사, 육계)
- 이기동(감사, 채란)

부산·경남지부 정기총회 개최



(손종현 지부장)

본회 부산·경남지부가 지난 1월28일 부산 온천동 소재 온천에식장에서 대의원 및 임원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8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87사업실적보고 및 수지예산결산서 등 각항에 걸쳐 항목별로 심의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분과위원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매월 1회이상 개최하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양계산업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요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사전정보를 통한 양계산물의 원활화를 위해 사전정보교환을 실시, 양계산물의 과잉생산방지를 위한 생산조절사업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유도하는 등 회원들의 이익추구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홍보실설치, 직제개편

- 홍보실장에 남두희 前편집부장 발령 -

87년도 3차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본회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3월1일부로 회장직속으로 설치 운영키로 하고 홍보실장에 남두희 전 편집부장을 발령했다.

국민소득증가로 단백질식품의 소비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타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비경쟁이 심화되면서 닭고기·계란의 적극적인 소비촉진홍보가 양계산업발전과 양계인 권익에 직결된다는 중요성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편집국에서 홍보업무와 잡지발간업무를 담당해 왔다.

본회는 지난 1986년도부터 본회중점사업으로 양계산물소비홍보사업을 펴오고 있으며 사업비는 양계인과 관련업체 협찬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지난 2년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양계인의 규모별 협찬기준액은 부화인 부화장입란규모 개당 2원, 채란·육계인은 규모별 수당 5원씩이다.

김포육계분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 김포육계분회(분회장 김기환)가 지난 1월29일(금) 분회사무실에서 88년도 정기총회를 회원 및 지역관련업체인사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분회의 '87사업실적 및 결산심의와 '88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진과 운영위원을 보설했다.

- 임원진 : 분회장 - 김기환
- 부분회장 - 고상현(섭외)
- 김양욱(재정)
- 운영위원 : 이종렬(고문)
- 신덕균(고문)
- 우상천(수석이사)
- 홍순원(이사)
- 조규택(이사)
- 백명기(이사)
- 심창섭(감사)
- 양서욱(감사)
- 판매총책 : 이한주

● 대한양계협회소식

- 총 무 : 김미정
- 경 리 : 고희진

천안육계분회 정기총회 개최

본회 천안육계분회(분회장 최범식)가 지난 2월10일(수) 분회사무실에서 '88정기총회를 회원 및 지역관련업계인사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새로운 분회장에는 최범식시장과 부분회장에는 김학선사장이 선출되었다.

이천분회 사무실 주소변경

본회 이천분회(분회장 최정삼)의 사무실 주소가 지난 3월2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변경전 : 경기도 이천시 이천읍 창전리 89-5
- 변경후 : 경기도 이천시 이천읍 중2리 166-2
- 전화번호는 종전과 동일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2월26일 본회회의실에서 2월 육계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정보교환에 이어 가격안정화를 위한 입추자제와, 최근 닭고기 수입개방압력과 관련하여 수입육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델리(주)와 두산식품(주)를 방문하여 「닭고기 수입개방압력 통보여부 사실조회」와 아울러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질병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대해 3월육계분과위원회 때는 가축위생연구소 계열과 연구관을 초청하여 규명키로 결정했다.

편집위원회 개최



88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위원장 : 정선부 박사)가 지난 2월12일 오후2시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양계인들로 하여금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게재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위해 좌담회를 개최 그 내용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검토후 확정지었다.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